이민선

아름다움을 소통하는 디자이너 이민선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동경하는 모양과 비율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사람들마다 조형적인 아름다움, 기능이 편리함에 따른 아름다움, 사회적인 아름다움 등등 우선순위가 다르다.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아름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Lee Minseon

I'm Lee Min seon, a designer who communicates beauty. Beauty shows the harmony between forms and proportions that we admire, giving us joy and satisfaction.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priorities, such as the beauty of form, the beauty of function by convenience, and the beauty of society. As a designer, I will try to understand beauty by listening to and communicating with various people.

[mslee6999@naver.com](mailto:mslee6999@naver.com)

<https://www.behance.net/mslee699981ac>

@lmspyqt